

# 원도심 학생 감소 여전... 위기 속 작은 변화도

### 활성화 정책에도 8개교 학생 수 100~300명 불과 제주남초·북초 등 일부 학교 올해 신입생 수 증가 “제주형 자율학교·통학구역 신축적 운영 등 영향”

제주 원도심 학교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학생 수 감소 추세는 여전하다. 학령인구 감소와 도심 공동화 현상으로 어려움이 계속되는 가운데 일부 원도심 학교는 작지만 유의미한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3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원도심 학교는 원도심 지역에 있는 학교(18학급 이하) 중 1990학년도 이후 최대 학급 수 대비 지정 당해 연도 학급 수가 50% 이상 감소한 학교를 말한다. 도내 원도심 학교는 제주시 5개교(제주북초·제주남초·광양초·한천초·일도초), 서귀포시 3개교(서귀중앙초·서귀서초·서귀포초) 등 모두 8개교다.

도교육청은 2016년부터 원도심 학교 활성화를 위해 원도심학교 특화 프로그램 운영, 학급당 학생 수 조정, 통학구역 신축적 운영, 학교 운영경상경비 추가 지원, 원어민 수업 시수 확보, 교무행정지원인력 배치 등을 지원해 오고 있다.

10년 가까이 이같은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학생 수 감소세는 이어지고 있다.

원도심학교 8곳의 학생 수 추이를 보면 2015년 2036명에서 올해(지난달 3일 2025학년도 2차 학급 편성 기준) 1690명으로 10년 새 346명(17.1%)이 줄었다. 1990년 전 교생이 학교당 많게는 1000~1800명이 넘던 이들 학교의 현재 학생 수

는 100~300명 정도에 불과하다.

학교별로 보면 일도초(2015년 12학급 210명→올해 6학급 112명), 제주남초(12학급 203명→7학급 110명), 한천초(14학급 293명→12학급 207명), 광양초(13학급 210명→12학급 184명), 서귀포초(12학급 277명→12학급 181명), 서귀중앙초(16학급 393명→16학급 308명)는 학생 수가 줄었다. 반면 제주북초(14학급 248명→16학급 305명), 서귀서초(12학급 202명→15학급 283명)는 학생 수가 늘었다.

통학구역 신축적 운영을 통해 지난해 원도심학교로 전·입학한 학생 수는 제주시 45명·서귀포시 39명 등 모두 84명이었는데, 지난해 제주북초와 서귀포초로 전·입학한 학생 수는 각각 25명, 19명으로 절반이 넘는다.

이같은 현상에 대해 도교육청은 학교별 특색있는 교과과정을 운영

하는 제주형 자율학교 지정의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이들 원도심학교의 신입생이 늘어나서다. 2022년 IB(국제 바칼로레아) 학교로 지정된 제주북초는 지난해 35명에서 올해 69명으로 34명이 증가했다. 지난해 글로벌 역량학교로 지정된 제주남초의 올해 신입생 수는 39명이다. 전년 대비 지난해에는 7명이 늘어났던 것과 비교하면 올해는 3배(22명) 늘었다.

그러나 향후 인구 유입이 큰 제주시 아라동, 외도동, 오동동 등 지역에 학교 신설이 예고되는 등으로 원도심학교의 공동화 현상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제주교육의 오래된 미래인 원도심학교 활성화 방안을 통해 원도심 학교의 교육력 제고를 넘어 원도심 지역 활성화까지 나아가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백소정기자

#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발령 제주해경, 5일까지... 너울로 높은 물결 해안 유입

해경이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에 따른 ‘주의보’를 발령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2일 오후 6시부터 오는 5일까지 제주도 전 해상에 물결이 1~4m(3~4일 먼바다 최대 5m 이상)로 매우 높게 일고, 제주도 해안에는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연안 안전사고 위험 예보제 ‘주의보’ 단계를 발령했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이에 해경은 사전에 항·포구와 해안가 순찰을 통해 위험 요소를

차단하고, ‘주의보’ 발령 기간 연안해역 활동객을 대상으로 안전계도를 강화하는 등 사고 예방에 주력할 방침이다.

‘주의보’ 단계는 연안해역에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거나 발생해 피해 확산이 우려되면 발효된다.

해경은 “이 기간에 높은 물결이 해안가에 유입될 것으로 예상돼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크다”며 “위험 구역 출입을 피하고 무리한 연안활동은 삼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 제주자치경찰, 노후 교통신호기 전면 개선 20년 이상 고장 다발구간 17개소 우선 정비

제주자치경찰이 20년 이상 된 노후 교통신호기에 대한 전면 정비에 나선다. 노후 교통신호기는 5개소 중 17개소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교통신호기의 안정적 운영과 위험요소에 따른 사전 해소를 위해 도내 주요 교차로의 노후 교통신호기 17개소에 대한 전면 정비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도내 전체 교차로에 설치된 교통신호기는 1120개소이며 이 가운데 20년이 넘는 교통신호기는 215개소(19.2%)에 달한다.

자치경찰단은 부식이 심하고 전

기·제어설비 장애가 잦은 17개 교차로(제주시 14, 서귀포시 3)를 우선 정비한다.

특히 긴급 정비가 필요한 신호기는 장마철이 시작되기 전 보수를 완료할 계획이다. 예산이 수반되는 신호기에 대해서는 정비 시급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고, 추가 예산을 확보해 단계적으로 정비할 방침이다.

정비 작업은 3월 중 신호기 유지관리 전문업체와 합동으로 진행된다. 점검 항목은 신호기 철주의 부식 상태, 제어기 설치 연한, 전기설비 장애 발생 빈도 등이다. 백금탁기자

# 신호등·지붕 패널 등 파손 초속 20m 강풍 피해 속출

제주지역에 초속 20m를 웃도는 강풍이 불며 피해가 잇따랐다.

3일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30분 기준 제주 서부·북부·동부·남부와 추자도에는 강풍경보가, 북부중산간·남부중산간과 산지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졌다.

강한 바람으로 인해 제주 곳곳에서는 가로수가 쓰러지고 신호등이 떨어지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이날 오전 8시44분쯤 제주시 봉개동에서는 지붕 패널이 날아가는 사고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안전조치했다. 또 이날 오전 9~10시쯤에는 서귀포시 법환동, 색달동, 제주시 구좌읍 등에서 가로등과 가로수가 쓰러지기도 했다. 오후 1시27분쯤 제주시 도두1동에서는 중앙분리대가 쓰러지는가 하면 오후 1시25분쯤 구좌읍에서는 선박이 전복되는 등 이날 오후 3시까지 소방당국은 기상관련 신고 총 21건을 접수해 안전조치했다.

김채현기자



겨울잠에서 깨어난 큰산개구리. 절기상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칩을 이틀 앞둔 3일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 제주자연생태공원 연못에 겨울잠에서 깨어난 큰산개구리들이 봄기운을 마시고 있다.

# “공립유치원 교원 배치 기준 조속히 마련해야”

### 제주교사노조, 3일 성명

제주교사노동조합은 육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3일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질적 향상을 고려한 보다 체계적인 교원 배치 기준을 수립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들은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도내 공립유치원에서도 초·중등학교와 같이 교과전담교사 기준을 마련하고 유치원별 현황을 파악해 각급 학교별 실정에 맞는 교원 배치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백소정기자 cosorong@ihalla.com

# 읍면 부설주차장·자기차고지 실태조사

### 서귀포시, 10월까지 진행

서귀포시는 민간 주차장 이용률을 높여 주차난 해소와 안전한 주차환경 조성을 위해 부설주차장과 자기차고지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 대상은 읍면 지역 부설주차장 9507개소와 자기차고지 1169개소로 이달부터 10월까지 8개월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주차장 내 불법 건축과 증축 여부 ▷부설 주차장 무단 용도변경 여부 ▷물건 적치, 구조물 변경 등 기능 미유지

여부 ▷기계식 주차장의 관리실태 사항 등이다.

문미숙기자

사랑으로 지은 집  
사랑으로 가득한 집  
부영사랑으로

## 최신 국내육성 감귤 묘목 생산 전문업체

전망 좋은 신품종 감귤 만감류등 각종묘목을 선별하여 최상의 상품을 공급해 드립니다.

윈터프린스, 탐나는봉, 사라향, 하례조생, 포트묘, 화분묘

**대한민국 국가대표 감귤나무**  
품질이 우수한 품종 1~4년생(포토묘, 일반묘)  
윈터프린스 / 탐나는봉 / 사라향 / 하례조생 / 미래향 / 제라온 미니향 / 탐빛1호 / 무봉

**농가보조지원 우량품종 1~3년생(포토묘, 일반묘)**  
레드향 / 한라봉 / 천혜향 / 황금향 / 우리향 궁전조생 / 유라조생 / 카라향 / 레몬

**가정원에 조경수 2~7년생(포토묘, 화분묘, 일반묘)**  
하귤 / 팔삭 / 세미늘 / 금귤 / 당유자 / 머틀립오렌지

**감귤묘목 수출전문업체** (중동, 아프리카, 동남아 등 5개국 수출)  
**감귤 무병묘 생산 정부지정업체** (무병묘생산, 모수포 보유)  
**보조사업 묘목공급 지정업체** (원지정비의 지원사업 서류가능)

**제주한라농원 감귤류묘목 나무시정!!!**  
◆ 1년생 규격묘, 2~5년생 일반묘, 포토묘, 화분묘 분양 ◆  
◆ 정식/보식용 묘목 소량도 행사판매 가능 ◆

제주한라농원은 (사)한국과수종묘협회 우수업체이며, 우수신품종을 농촌진흥청 국유품종보호(통상상식권)계약자로 생산, 증식하여 판매하는 중요전문업체입니다.

제주한라농원 | 010-4736-2479 / 010-6500-2329  
총자업등록번호 제18-2017-20-02호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서성일로 991번길1(수산리735)

## 강정종묘 종남농장

신품종 우량묘 포토묘

제18-서귀포-2019-20-03

- 국립종자원에 생산, 판매신고가 된 믿을 수 있는 공식업체
- 국내육성 신품종 통상실시 계약완료
- 다양한 년수 포토묘 보유중

**등록품종**  
한라봉, 천혜향, 황금향, 카라향, 레드향, 하귤, 유라조생, 레몬.

**신품종**  
달코미, 우리향, 미래향, 설향, 맛나봉, 레드스타, 하례조생, 윈터프린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이어도로 530 (사무실) | 주문전화 010.3696.1614

허가번호 18-제주2022-20-03

## 감귤묘목

유라조생	2~3년생
천혜향	3~5년생
황금향	3~5년생
한라봉	3~6년생
남진해	3~4년생
성전온주	3년생
하례조생	3년생
탐라봉	3년생
윈터프린스	3년생
감귤평	3년생
진지향	3년생
탱자묘	1년생

## 한림종묘사

010-8820-5769  
종자관리사 010-3690-2453